

## 의치의 기능과 심미적 조화

(Esthetics and functional harmony of denture)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교수 최 대 균

의치에 있어서의 심미학이란 자연적이면서 아름다운 인공치와 그 주위조직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지만, 단순히 보철, 기공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이면서 건강한 아름다움의 탐구를 말하며, 환자자신의 자기표현의 재인식임과 동시에 자기주장의 기본적인 요소인 표정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안모를 형성하고 있는 해부학적인 재구조는 서로간에 협력하면서 발육하며, 일생을 통하여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또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서로간에 의존 및 협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이면서 동적인 평형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기능도 원활하게 유지가 되며, 이러한 평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의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생을 통하여 이러한 동적인 평형상태는 파괴될 수 있으며, 충치와 같은 비교적 적은 변화에서 부터 크게는 생활조직의 형태나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연치의 발거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는 다양하다. 이와같이 구강의 기능과 안모의 심미성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과치료시의 구강기능의 회복과 안모의 심미 회복은 서로서로 의존 및 협조를 하는 구강주

위 재조직의 동적인 평형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전치를 포함하는 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는 안모의 심미성회복이라는 점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정이란 얼굴이 기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얼굴의 하방 $\frac{1}{3}$ 에 해당하는 건강한 구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심미성회복의 성패라고 할 수 있겠다. 치과심미학은 치주학적인 부분, 교합에 관련된 부분 등등 여러가지 전문 분야가 모두 분야가 기능적이면서 생리적인 그리고 구강이 한 단위로서의 유기적, 종합적, 전체적인면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음식물의 섭취는 생명유지의 기본이며 따라서 치과보철물을 제작할 때는 제작이라는 기능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나아가서 심미성의 회복은 환자의 심리적인 면까지를 회복할 수 있다면 치과의학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충분한 기능과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 건강한 치주조직, 밝고 아름다운 미소, 개성적인 희노애락의 표현 등을 회복하도록 하는 학문이 치과심미학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치과의학에 있어서의 심미란 기능적인 면을 희생하지 않고 기능적, 생리적인 조화를 기본으로 하여야만 그 의미

가 있다고 하겠다.

의치는 인상면(Impression surface), 연마면(Polished surface), 교합면(Occlusal surface)의 3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면은 각각 의치의 유지, 안정, 지지, 심미성, 발음, 구강조직의 건강 등에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부분만 강조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미성을 위하여 단순히 연마면만을 심미적으로 한다고 하여 심미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의치를 구성하고 있는

3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비로소 심미적인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3면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떻게 하여야 기능적이면서 심미적인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너무 심미적인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최우선 되어야 할 기능적인 부분이 혹시 무시되는 경향은 없었는가라는 반성과 함께 가장 기능적인 것이 가장 심미적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방대한 자료정리와 촉박한 시간관계로 미쳐 원고를 게재하지 못하고 초록으로 게재를 대신하였습니다.

추후 이내용의 원고를 협회지 지면을 이용하여 게재하겠습니다.